



朝日報



2012년 6월 4일 창간 | 제 113 호

Jo.com

2013년 7월 17일 (화) 개판

이명박 밀항하다 현장 체포

日로 튀려던 듯...朴대통령, "국적 추락 불 보듯" 참담 심경 표출 구속 나꼼수 3인 "사람 만들 테니 같은 방 쓰게 해달라" 청원



이명박 전 대통령 체포에 혁혁한 공을 세운 고양이 비비캣

최근 검찰의 소환 압박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밤 11시경 포항 구룡포항에서 일본 시마네현 미나토 항구로 밀항하려다 해양경찰청에 적발돼 긴급 체포됐다. 해경은 이 전 대통령이 쥐치잡이 어선에 몸을 은닉하는 바람에 고양이를 동원해 수색하는 등 갖은 애를 먹었다며, 도주의 우려가 심대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자금을 챙긴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또한 수감 중인 형 이상득 의원 등과 공모해 국고 수조원을 해외로 은닉했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로 궁지에 몰려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자원외교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는 상대국으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추적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심부름센터를 개소한

이 전 대통령은 최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조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강도 높은 출두 압박을 받아왔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무기 수입과 관련한 전문학적 규모의 부정부주 민주통합당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은폐 조작했고, △ 민간인 사찰의 핵심 몸통으로서 진두지휘했으며, △ 10.26 부정선거의 실질적으로 관여한 흔적이 있다며 MB 국기문란 3대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불 보듯하다"고 개탄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비방 혐의로 흥성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등 '나는 꼼수다' 진행자 3인은 옥중 성명을 발표하고, "박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방을 쓰게 해야 한다"며 "일생이 부당거래로 살아온 이 전 대통령을 새 시대에 걸 맞는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밀항 파문을 접한 새누리당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강용석 대변인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운을 떼고는 "생긴 걸로 보서는 예쁜 여자에게 전화번호를 받을 것 같은 변태 관상"이라며 애써 모른척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뺑상훈 기자 room@jo.com

"장발·짧은 치마 이전 안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의식 개혁을 선도할 새 마음 운동 시즌 2를 선언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1970년대말 집중 근절했던 장발(사진) 및 미니 스커트에 대한 규제를 재개해 거리에서 즉석 이발 및 벌과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우리말 사랑 정신에 부응하고자 가수 명을 모두 한글로 개칭할 것을 엄명했다. 이에 따라 버스커버 스커는 '거리의 악사들', 슈퍼주니어는 '큰 어린이', 원더걸스는 '놀라운 소녀들', 빅뱅은 '혼돈', 브라운아이드걸스는 '갈색눈동자 소녀들' 등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은 'MB 씨(氏)'인 방송사 명칭을 '쥐'로 기민하게 개칭했다.

개기름 기자 dogoil@jo.com

조선일보 절독문의 1577-8585

리빙 포인트

살고 싶으면

박근혜 각하의 말씀에 무조건 찬성하고 지지하는 박수를 보낸다.

朝日報 전국대학평가 1위 영남대학교(전 이사장 박근혜 대통령) 선정

구 전남도청사 앞에 5.18전승기념상 설치



한 때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다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복귀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의 난동으로 재정립된 5.18내란과 관련, 정부는 전두환 전 장군의 군부를 동원한 수습을 찬하하는 기념상을 잔당 소탕 장소인 전남도청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기념상 디자인 내부 공모 결과 전 장군을 상징하는 문어상(사진)이 그랑프리감으로 유력하다"며 "1등에게는 29만원의 상금과 함께 두통약 전두환(全頭丸) 평생 무료이용권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희동 측 관계자는 전 전 장군이 "매우 만족스러운 조치"라며 "좋아, 아주 좋아"를 연발했다고 전했다.

뺑상진 기자 ziral@jo.com

YS, 민주당 입당 "박정희 망령 못 본다" 포효 김문수 이재오는 통진당으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의 창당주역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통합당에 입당해 큰 파문을 낳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6일 "나라가 망가져도 그렇지 어떻게 독재자 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며 "힘 있는 정통 민주세력의 복원을 위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 입당 원서에는 차남 현철 씨의 것도 첨부됐다. 3공화국 등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 야당 당수를 지내며 권력과 맞서왔던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을 '철퐁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란 노래제목을 본따

통합진보당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진보정당인 민중당의 창당주역이었던 두 사람은 "작년 비례대표 부정선거 논란 이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진보정당에 새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입당 한다"며 "보수를 경험했고 간파한 숙련된 정치력을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뜻밖에 입당원서를 받아들인 민주당과 통진당은 곤혹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해보겠다며 노태우 정권과 손잡았던 김 전 대통령이 무슨 낯짝으로 민주진보진영에 노크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입당원서에 정신건강 진단서를 추가 첨부하면 검토하겠다"고 일갈했다. 강기갑 통진당 대표는 "강산에 노래보다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로 시



뺑상진 기자 room@jo.com

'최선의 선택 : 쿠데타' 우리도 합시다

우리의 영도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작년 이 무렵 5.16 군사쿠데타를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대한민국의 초석'이라 미화했습니다. 그 좋은 거, 우리도 한 번 해봅시다.

군사 쿠데타 행동대원 모집

1. 인원 : 00명
2. 자격 : 육해공 3군 소속으로 탱크, 장갑차, 중화기 및 병사 동원 가능 사단장
3. 특전 : 집권시 2만개의 자리 중 서열 100위 집중 배치
4. 참여 방법 : DAUM 카페 '쿠데타를 준비하는 모임' 회원 가입 후 신청

군사 쿠데타 소셜 펀딩 모집

성공하면 전액 환급합니다.
당신도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 공주은행 1818-218-1818

